

" 서울시 문제 답다"

지난 5월에 실시된 18년도 상반기 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 6월에 실시된 서울시 9급 시험문제는 수치적으로 절대치를 맞추려한 경향이 보입니다.

먼저 과목분배를 살펴보면

수질	50~60%
대기폐기물	30~40%
소음진동 과 기타	10~20%

기출문제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 서울시 문제는 수질, 대기, 폐기물(토양 포함)이 거의 동일하게 30%씩 차지하고 나머지 소음진동문제가 2문제로 10%로 구성되었습니다.

절대 값으로는 과목별 분배가 딱 맞아떨어지나, 기존의 시험경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질문제가 줄어들고 대기 및 폐기물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번 서울시 문제는 5월 지방직에 비해 "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율로 이야기 하자면 난이도 하 30%, 중하 20%, 중상 20%, 상 30% 로 난이도 면에서도 수치상의 배분이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전 5월에 있었던 상반기 지방직 9급 시험의 난이도와 비교한다면 난이도가 중상이상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 지방직에 잘 나오지 않는 **법규문제와 국제동향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경기도, 환경부를 준비하던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지방 준비생이나 상반기 지방직 문제만 준비했던 응시생에게는 상당히 낯설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예전 학원에서는 경기도, 환경부, 서울시 준비생들에게는 법규와 국제동향과 같은 시사성 있는 문제를 따로 준비(심화 반에서 따로 다루었음)하라고 할 만큼 이 세 곳의 시험은 법규와 시사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기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시험은 그 외에도 상하수도과 같은 시설관련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시험범위가 넓은 편입니다만, 올해는 상하수도문제가 기출되지 않았네요.

기출된 문제의 세부범위면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를 준비하는 응시생에게는 이번 시험문제는 서울시의 기출 특성이 선명하게 잘 드러난 문제이므로 이 수준에서 준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